

The Global Cold War: Third World Intervention and the Making of Our Times

Odd Arne Westad

김헌준
고려대학교

의의

1. 냉전의 세계화 혹은 세계화된 냉전에 관한 연구로서의 의의
 - 가. 기존의 미국과 소련 중심의 연구에서 탈피
 - 1) 미국과 중국의 개입이 제 3 세계 국가의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국내, 국제적인 변화를 가져옴
 - 2) 제 3 세계의 엘리트가 자신들의 정책 방향과 선호와 사고를 미소 간 관계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런 인지적 프레임을 가짐
 - 나. “truly global perspective” (1)의 추구
 - 다. 기존 국제정치학 연구, 특히 냉전 연구 및 현실주의 등 전략 연구와 차별
 - 1) 이것은 앞으로 미중의 관계를 보는데 있어서도 큰 의의가 있음. 즉, 미소의 연구도 이렇듯 전 지구적 관점에서 보는데 미중 관계를 21세기에 미중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음
2. 냉전이 냉전으로서만 의의를 가지는 것이 아님 주장
 - 가. 미소 중심의 냉전이 그 이외의 국가들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
 - 1) 미소 간 냉전이 전 지구적인 시스템의 변화에 미친 영향
 - 나. 제 3 세계의 분노(resentment)와 저항(resistance)이 냉전 이후 역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로서의 의의
 - 1) 구성주의 시각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임
 - 가) 역사적 구성 - 시기적으로 긴 시간의 흐름 (주로 50년 정도이나 1.2장에서는 100년 이상을 다룸)
 - 나) 사회적 구성 - 강대국 중심이 아닌 국제 사회의 모습
 - 다) 관념 요소의 자율성과 독자성
3. 상당히 흥미로운 주장은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were driven to intervene in the Third World by the ideologies inherent in their politics (4)”라는 주장임.
 - 가. 이는 기존에 미소의 개입에 대한 군사적 혹은 전략적 이해관계를 우선에 두는 현실주의의 (전통주의)적 시각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우선에 두는 자유주의(수정주의)적 시각을 탈피해서 관념요인으로서의 이데올로기가 근본적으로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주장함
 - 나. 그런데,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근원이 국내정치에 뿌리를 두고 있고, 더욱 흥미로운 부분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결국에는 인류사에 있어서의 근대성 프로젝트(modernity project)의 일환임

- 1) “Locked in conflict over the very concept of European modernity - to which both states regarded themselves as successors - Washington and Moscow needed to change the world in order to prove the universal applicability of their ideologies, and the elites of the newly independent states proved fertile ground for their competition” (4)
- 다. 이렇게 본다면 냉전은 “a continuation of European colonial intervention”임. 즉, 근대화 혹은 계몽 작업이 연장선 상에 있음.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저자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 후대의 평가에 대해서도 자신이 있다고 봄 (I have little doubt that this is how historians of the future will regard the epoch - as one of the final stage of European global control.)

내용 요약

Chapter 1. The Empire of Liberty: American Ideology and Foreign Interventions

“In every contest”

- American universalism and teleology go back to the revolutionary origins of the state
- From the inception of the United States was an interventionist power that based its foreign policy on territorial expansion.
- 핵심 관념: liberty, anticollectivism (vs. independent individual), against centralized political power, science의 중요성 등이 중요하게 자리 잡음

“Foreigners” and anti-Communism

- 1차 대전 이후 - 유럽의 몰락과 미국의 등장
- Wilson 이후 중요해진 관념: nationalism (self-determination), revolution (러시아 혁명)
- 하지만 둘 다 예상보다 많은 혼란을 초래하는 모습을 보여 타협하는 모습으로 귀결됨
- 미국이 나서지 않은 정책 (isolationism) 뒤에는 이민의 문제가 있음(?)
- 그리고 이 시기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립주의 (isolationist)적이지 않음 (대표적으로 이 시기에 미국의 경제력에 있어서의 중요한 breakthrough를 가져옴)
- 대공황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경제 등 기초를 놓음
- 이런 상황에서 1941 일본의 공격은 개입 전략을 구체화함
- “monsters” would have to be destroyed if the US was ever again feel secure
- 전쟁 중 미국이 중국에 개입한 형태에서도 미국의 초기 개입 모습은 나타남 (Washington’s attempt to guide allied regimes deemed deficient in talent, education, and moral strength toward reform.)

Beyond Europe

- 미국의 개입은 이미 미국이 형성될 때부터 있음
- 19세기 노예제와 남부 재건 중에 나온 개입의 중요 원칙 - emancipation, guidance (이러한 경향은 미국의 선교사에게서도 보임)
- 이것이 20세기에 대표적으로 나온 모델이 필리핀임 (opportunity to experiment with the transposition of American ideal to a culture regarded as alien). 이후에 이 모델이 재 생산되고 반복됨
- 2차 대전 후의 일본의 경우도 중요함 (mix of coercion, enticement, and appeal to the popular will)
- 중공의 탄생, 한국전쟁, decolonization의 영향 등

“The world as a market”

- 미국 자본주의의 중요성
- 하지만, 자본주의적 이해관계가 미국 외교정책에 있어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다고 주장

Modernization, technology, and American globalism

- 미국의 고등교육과 학문/이론의 영향력에 대해 언급 (근대화론 등)
- 교육과 보건 문제도 중요함
- 기술적인 성공 요인도 중요
- 이 모든 것이 나타난 것인 Peace Corps나 Alliance for Progress 임
- 외국의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문제

Chapter 2. The Empire of Justice: Soviet Ideology and Foreign Interventions

The Russian empire and its revolutions

- 미국과 같이 소련이란 국가도 founded on ideas and plans for the betterment of humanity임 (universalist)
- 근본적인 주장은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련의 경우도 러시아의 개입이라는 요인이 기저에 깔려 있고, 그 위에 공산주의가 덧입혀진 모습임
- “special destiny”
- 영토적인 확장이 16세기부터 시작되어 지속됨. 영토의 확장과 함께 이곳의 인민을 동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제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등장
- 스탈린 (Russified Georgian)의 역할이 중요
- 하지만 이런 작업이 진행되다가 중요하게 깨달은 점은 제3세계 국가의 내부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임. 즉, social change stimulated by Russia but carried out by the minorities themselves

The Comintern and the Third World

- 산업의 발전과 다양한 자본 작동의 논리가 나타나 혁명의 기운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제 3 세계에서 무르익음
- 소련이 처음으로 자국의 영토가 아닌 곳에서 실험을 할 수 있었던 경우 - 몽고 (testing ground)
- 코민테른을 이용하여 공산주의를 제 3 세계에 전파하려는 시도와 내부의 갈등
- 산업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공산당과 제 3 세계 공산당간이 코민테른에서의 온도차
- 중요한 소련 내부의 변화: the major internal transformation - the collectivization of agriculture
- Spanish Civil War - not only was it the first long-distance intervention directed by Moscow, but it also provided the personal experience that many leaders of the Cold War period fell back on to plan or execute their involvement abroad.

Defining intervention: Iran, China, Korea

- 1941 독일의 침입은 complete redirection of Soviet foreign policy를 가져옴 (소련은 이제 모든 가능한 리소스를 내외부의 적과의 전투에서 사용해야 함)
- 1945-1948 동유럽에서의 공산정권의 형성. 하지만 이것이 다른 국가에의 개입 - 터키- 등에는 좋지 않은 결과 가져옴
- 이란, 리비아, 중국, 한국의 개입의 사례에서 대부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함

The Soviet rediscovery of the Third World (1955-1960)

- 스탈린의 마지막 개입 사례 - 인도네시아의 공산당
- 이후, 개입의 방향은 무력 개입의 방향을 피하려고 함
- Khrushchev의 인도 방문으로 새로운 형태의 개입을 시도함
- 중국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함
- 소련을 정점으로 한 전 세계적인 사회주의 공동체를 그림
- 하지만 이러한 노력도 중소분쟁으로 인해서 악영향을 받고,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시도는 크게 없음

비판점

1. “an unabashedly presentist book, even though it is also an historical account, written by a historian”

가. Presentism 맞음 - 현재의 목적에 맞게 역사적 서술을 하거나 역사적 문서를 그렇게 해석함.

1) 현재의 관심 사항 - 현존 국제정치 질서 -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를 볼 수는 있음.

그것은 자체로 문제되지 않음.

2) 하지만 전반적으로 주장을 틀에 맞추어 놓고 역사적 사건을 취사선택해서 나열 및 서술하고, 문서를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

가) 미국의 역사 서술에 있어 중요한 사건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정당화 없음 - 그러나 왜 특정하게 언급된 사건들이 주요 사건인지 알 수 없음

나) 역사 서술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시점에서 다양하게 가능했던 선택들에 대한 고려 없이 단선적인 개념으로 서술함. 결국, post-hoc analysis의 경향이 존재

2. 사회과학자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임 - 검증을 할 수 없음

가. 이 역사인식을 왜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본인의 주장이 어떠한 historiography에 기초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음

1) 예를 들어, 1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isolationism 뒤에 이민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흥미로운 주장임. 이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그렇게 설득이 되려고 함. 하지만, 과연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왜 이민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보는지, 그것의 바탕이 되는 본인의 이론, 혹은 기본적인 인과나 역사의 흐름에 대한 사고가 어떤가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이 없이 진행이 됨.

2) 미국의 경우, 경제이익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설명함에 있어서도 이데올로기, 문화, 지식 등 다양한 요인들과 동시에 견주어 설명하지는 않음. 일단 섹션을 나누고 그 섹션 안에서 경제적 이익이 중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섹션에서 이데올로기가 중요했다고 주장. 결국에는 이 두 요인이 동일한 사건에서 동일한 기준을 통해 중요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저자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현재의 논의 구조에서는 알 수 없는 문제임.

3) 소련에서 아시아로의 확장을 설명하다가 세대들이 그 전의 세대들이 잘못 되었음을 깨달았다고 설명함. 그리고 이에 대해, 제 3 세계 자신이 발전의 논리를 가지고 동학을 가져야, 큰 기계의 일부분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주장함. 매우 중요한 주장인 것 같은데 증거(citation)가 없음.